



폭염에 전국 '펄펄'…주말 온열질환 사망 11명·의사 4명

당분간 밤낮없는 짐통더위…물 자주 섭취·야외 활동 자제 권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수원 신비한 물너미를 찾은 어린이들이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30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온열질환자 178명이 발생했다.

감시체계 운영이 시작된 5월 20일부터 지난 28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938명(추정 사망자 3명)으로 장마가 끝난 뒤 금증했다. 이번 주말 들어 온열질환 추정 사망 사례가 속출하면서 공식 집계 숫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발견됐을 당시 체온이 높은 상태였다.

이번 주말에 온열질환으로 숨지거나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만 11건으로 이들 모두 통계에 더해지면 올여름 온열 질환 관련 사망자는 14건으로 급증한다.

바다와 계곡에서 물놀이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고도 속출했다.

전날 오후 1시 45분께 부산 영도구 영도하늘전망대 자갈마당 해상에서 물놀이

같은 날 경기도에서도 양평군 옥수수밭과 안성시 밭에서 숨진 사례가 발생했고, 충북에서도 제천에서 농작업 중 쓰러진 주민이 숨져 충북지역 내 첫 온열질환 사망 사례가 나왔다.

30일 역시 불볕더위 속에 오후 2시 9분

께 경북 예천군 감천면 관현리에서 80대 남성이 풀밭에 쓰러진 채 발견됐고, 비슷한 시각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에서도 90대 남성이 밭을 하러 갔다가 길가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도심에서는 정전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다. 전날 오후 8시 40분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5개 단지에 변압기 이상으로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무더위에 밤잠을 설쳤다.

같은 날 오후 8시께 광주 남구 월산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변압기 합선 사고가 발생해 아파트 314세대 전체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낮 기온은 강릉 35.7도, 서울 34.9도, 청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수원 신비한 물너미를 찾은 어린이들이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34.3도, 대구 34도, 제주 32.9도, 전주 32.8도, 부산 31.2도, 광주 30.6도 등이다.

해서 실내 키즈카페로 발길을 돌렸다"고 혀를 내둘렀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 안팎으로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날 서울, 인천, 광명, 김포 장기 등 수도권 4곳을 비롯해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등 21개 관측지점에서 열대야가 관측된 가운데 이날도 낮에 오른 기온이 밤에도 좀처럼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폭염 시에는 물을 자주 마시고, 외출·활동을 자제하며 시원하게 지내는 건강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강윤호 기자

수해 대응 전념해온尹대통령, 내달 초 '최소 일정' 휴가 떠나나

대통령실 참모진, 구체 일정 검토…“민간소비·지역경제에 큰 영향”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초 최소한 일정으로 여름휴가에 들어가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참모진은 이 같은 윤 대통령 여름휴가 계획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일정을 따져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을 마친 직후 '극한 호우'로 인한 수해 대응에 전념하면서 여름휴가 계획을 일단 백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 휴가와 관련한 언급을 자제해 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처리할 국정

현안이 많아 (대통령) 휴가를 논의할 때는 아닌 것 같다”며 “국정 현안에 집중하고 적절한 때가 되면 간단히라도 쉴 방안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 하한기’로 불리는 8월이 다가오면서 최소한 일정으로라도 대통령 휴가는 필요하다는 게 참모진 중론이다.

대통령 휴가는 공직사회 휴가와 연동되기 마련이고 민간에도 영향을 준다. 고물가·고금리로 위축된 경제를 진작하는 차원에서도 대통령이 짧게라도 휴가를 다녀오는 쪽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참모진 사이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휴가는 공직사회 휴가와 연동되기 마련이고 민간에도 영향을 준다. 고물가·고금리로 위축된 경제를 진작하는 차원에서도 대통령이 짧게라도 휴가를 다녀오는 쪽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참모진 사이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

서 “대통령 휴가는 민간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휴가 장소를 두고서는 여러 암이 실무선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첫 휴가 당시 저도 등 지방 휴양지와 민생 현장을 찾으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닷새간 서초동 사저에 머물렀다.

거제 저도는 이른바 ‘청해대’(青海臺)라 불리는 대통령 별장이 자리한 곳이다.

대통령 여름휴가에 관심이쏠리는 것은 역대 대통령들이 재총전하며 새로운 국정 운영 구상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 송원기 기자



퇴직연금 1위, 이유가 있습니다

글로벌 ETF를 비롯한 앞선 상품들, 엄격한 리스크 관리,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1위의 차이를 누리세요.

퇴직연금 적립금 증권업체 1위 (2022년 말 기준) | 퇴직연금 자산 20조원 돌파 (2023년 1분기말 기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원리금 보장 및 비보장형 합계금액 공시기준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관리센터 1588-5577] ■ 투자자는 금융상품[퇴직연금]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DC/IRP]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DB]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파생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의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초소득세(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DC 저산관리 수수료(후취) 연 0.10%~0.28% 운용관리수수료(후취) 연 0.10%~0.30%(적립금 별 상이, 자체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IRP 저산관리 수수료(후취) 연 0.1% / 운용관리수수료(후취) 1억 미만 : 연 0.2%, 1억 이상~3억 미만 : 연 0.18%, 3억 이상 : 연 0.15%(장기계약 할인 및 디렉티브계약의 수수료 등 자체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189호 (2023.06.01~2024.05.31)

글로벌 투자 파트너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원희룡 “양평고속도로 노선, 여야 노선검증위원회 꾸려 정하자”

“국정조사 갈 것 없다…무제한 상임위 개최에 협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야가 노선검증위원회를 꾸려 노선을 정한 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자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이날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서 참석한 원 장관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미 노선검증위원회를 여야가 함께 꾸리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간사를 중심으로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국정조사에 갈 것도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7일 전에만 전문가들을 부르면 되고, 증인 선서에서 거짓말하면 처벌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회를 무제한 열고, 증인을 부르는 데 협조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이미 정쟁화돼 있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려면 전문가의 과학, 상임위를 통한 진실 규명, 고



발언하는 원희룡 장관

속도로 수혜자인 양평군민의 뜻을 최대한 모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중호 기자

교육부 “이주호 11년 전 교권보호조례 반대, 사실 아냐”

“교원의 지위·권한은 조례 아닌 법률에 근거해야한다고 지적”



답변하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년 전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앞장섰다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30일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장

적했고 이를 대법원에서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에서 2012년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 발의됐지만 교육부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재의, 제소를 요청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시 발의된 조례안에 교원이 교육 과정의 재구성, 교재 선택 및 활용, 교수 학습 및 학생평가에 대해 자율권을 갖는 조항이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5월 조희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14년 2월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율이 필요하다”며 해당 조례안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는 2012년 8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교권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일시 보호, 학생 징계 요구 등의 내용을 담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다했다”며 “이런 노력은 2016년 2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다음달 말까지 마련하고,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박정훈 기자

교육부는 30일 설명자료에

서도 원안이 확정되자 같은 해 7월에는

조 교육감에게 대법원 제소를 요청했다.

교육청이 제소 요청에 응하지 않자 교

육과학기술부는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野, 이화영 안되니 김성태 압박으로 타깃변경?”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검찰이 김 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압박하다가 안될 거 같으나 이제는 김성태씨 압박으로 타깃 변경이냐”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자기 당 대표의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 방해에 다수당의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돌인’하는 것은 정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강제로 시켜 북한에 뒷돈을 갖다 바치는 것”은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 비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의혹이 제대로 파헤쳐질수록 이 대표가 쌍방울 사건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친윤석열’ 검사들이 쌍방울 그룹으로 대거 채용됐다면 “이 전관의 힘이 성공적으로 작용해 봐주기 기초로 이어진 것”이라고 따졌다.

/ 송진영 기자

이차전지 열풍에 증시로 몰린 개미들…7월 예탁금 ‘올해 최대’

이차전지주 거래대금 폭주…전문가 “투매성 쏠림현상 오래가지 않을 것”

이달 들어 이차전지 열풍에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로 몰리면서 투자자예탁금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 27일 기준 58조1천900억 원으로 지난해 7월 1일(58조7천300억원) 이후 1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 계좌에 맡겨두거나 주식을 팔고서 찾지 않은 자금이다. 증시 진입을 준비하는 대기성 자금이어서 주식 투자 열기를 기울이는 지표로 통한다.

지난달 말 51조8천억원이던 예탁금은 이달 58조1천억원까지 증가하며 한달 새 6조원 넘게 늘었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에 변동성이 크지만, 이차전지 종목이 극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간 점이 개인 투자들의 주식 선호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본다”며 “향후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



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시장을 합친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27조300억원으로 전달(19조1천억원) 대비 41% 증가했다.

일평균 거래대금이 27조원을 넘어선 것은 2021년 8월(27조4천530억원) 이후 처음이다.

이차전지 종목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거래대금도 급증했다. 에코프로가 150만

원으로 오르며 최고가를 기록한 지난 26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친 거래대금은 62조8천억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특히 이날 하루 코스닥 거래대금은 26조4천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달 이차전지 쏠림 현상은 코스닥시장뿐 아니라 포스코그룹주 등을 중심으로 한 코스피까지 확산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유가증권시장에서 POSCO홀딩스(1조7천700억원)와 포스코인터내셔널(4천500억원)의 일평균 거래대금 합산 금액은 2조2천억원으로 이달 유가증권시장(829개 종목) 일평균 거래대금(14조1천억원)의 15%를 차지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에코프로(1조5천억원)와 에코프로비엠(1조3천억원)을 합친 거래대금은 2조8천억원으로 코스닥(1천636개 종목) 일평균 거래대금(12조9천억원)의 22%를 차지했다.

빛내서 투자하는 일명 ‘빛투’도 이달 들어 급증했다.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지난 달 말 19조4천억원에서 이달 28일 20조1천억원까지 7천억원 증가했다.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투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으로 이 잔고가 늘었다는 것은 차입 투자가 증가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차전지 종목에 수급이 몰리면서 각 증권사 지점에는 이차전지 주가 흐름을 묻는 투자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 노승민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두 힘을 합쳐도 어려운 판에 나까지 내치고도 총선이 괜찮을까”라고 적었다. 그는 “하이에나 때들에게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지만 이 또한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할 것”이라면서도 “나를 잡볍 취급한 건 유감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황교안이 망한 것도 풀보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며 “나는 총선까지 쳐냈지만, 이준석도 안고 유승민도 안고 가거라”라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앞서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에 휩싸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

홍준표
국회
내 일찌기 정치만은 하이에나 때들이 우글거리는 정글과 같다 고 했다.
그곳에서 살아 남을려면 사자가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사자는 하이에나 때들에게 물어 둔거도 절대 죽지 않는다는.
하이에나 때들에게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지만
이 또한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할 것이다.
나를 잡볍 취급한 건 유감이다.
모두 힘을 합쳐도 어려운 판에
나까지 내치고도 총선이 괜찮을까?
황교안이 망한 것도 풀보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나는 총선까지 쳐냈지만
이준석도 안고 유승민도 안고 가거라.
가족이나 하악한 지지층이다.
그런게 정치다.

원권 10개월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 이찬우 기자

고향사랑 기부제

우리 고향에 힘이 되는 법-기부를 통한 나눔입니다

당신의 작은 기부도 농촌에는 큰 힘이 되니까

고향에 기부하고

우리 농축산물을 선물로 받으세요!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액의 30% 상당 달려풀 지급

지역 농축산물 및 지역 특산품 등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100% 공제
10만원 초과분 : 16.5% 공제

기부금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사랑기부 신청 방법

> 시행 : 2023년 1월 1일

- 온라인 : 정부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 e음)

- 오프라인 : 농협은행·농축협

*기부 한도액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법인 기부 제외)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성매수' 판사, 성매매 재판에도 배석…판결문엔 "엄벌 필요"

성매매 알선 항소심·미성년자 성매매 1심 등 최소 10건 참여



서울 출장 중 성매수하다 적발된 혐의로 판사는 과거 다수의 성매매 관련 사건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연합뉴스가 대법원 열람 시스템을 통해 최근 10년간 선고된 형사 사건 판결문을 조회한 결과, 성매수 혐의로 적발된 이모(42) 판사는 이를 올린 성매매 관련 판결문은 최소 10건으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현재 소속된 지방법원에서 2021~2022년 형사항소 합의부 배석 판사로서 총 7건의 성매매 알선 사건 재판 선고에 참여했다.

재판장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는 배석판사 1인이 '주심'을 맡아 사건을 주도해서 심리한다.

재판 절차가 종결되면 세 판사가 머리를 맞대는 합의 절차를 거쳐 유무죄와 형량 등을 결정한다.

이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는 지난해 1

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755만원이 선고된 성매매업주의 항소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2021년 9월에는 성매매 알선 업주 3명의 항소심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스마트폰 앱에 광고 글을 올려 성매수 남성을 물색했다"며 "비자발적인 성매매 또는 강요·작취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같은 달 유사성행위 알선업자의 판결문에서는 "수시로 이뤄지는 경찰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 문을 잠근 채 예약제로만 운영하는 등 이 사건 업소 운영의 불법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산림청은 지난 29일 전북 장수군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진 진원지 반경 20km 내 63개 지역에서 땅밀림, 산사태 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국립지역권산림치유공원 공사 현

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 청소년들에게 거액을 약속하고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도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청구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신재일 기자

산림청, '장수 지진' 관련 취약지역 현장점검



장에서 위험성을 살펴보고 전북 완주와 전남 담양에 설치한 땅밀림 무인 원격감시시스템도 점검한다.

현장점검에는 산림청을 비롯해 국립 산림과학원, 대한지질공학회 등 전문가 21명이 참여한다.

산림청 측은 "지표 균열, 산사태취약 지역 위험 요인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라며 "여진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오후 7시 7분께 전북 장수군 북쪽 17km 지역(천천면)에서 규모 3.5 지진이 발생했다.

/ 박소희 기자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서 교사들이 고인 된 서이초 담임교사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6년간 교사 100명 극단 선택

초등 교사 절반 넘어

최근 6년간 공립 초·중·고 교사 100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숨진 교사 중 절반 이상(57명)은 초등학교 교사였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취합한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18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공립 초·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3명), 부산(9명), 경북(8명), 충남(7명) 등으로 나타났다. 극단적 선택은 2018년 14건, 2019년 16건, 2020년 18건, 2021년 22건으로 4년 연속 증가하다가 2022년에는 19건으로 소폭 감소, 올 상반기에는 11건으로 나타났다.

학급별로 보면 최근 6년간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초등학교 교사가 57명으

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는 28명, 중학교는 15명으로 나타났다.

2022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초중고 교원(44만1천796명) 중 초등학교 교사가 44.1%(19만5천37명)임을 감안해보더라도 초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유 1위는 '원인 불명'(70명)이었고, 그 외에는 '우울증과 공황장애'(16명), '가족갈등'(4명), '신변비관 및 질병비관'(각각 3명), '병역의무'(2명), '결혼준비 및 투자실패'(각각 1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돼 경찰과 교육 당국이 각각 조사에 나선 가운데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황지현 기자

'알펜시아 입찰담합' 최문순 13시간 조사…혐의 전면 부인

KH그룹에 입찰정보 제공 의혹…배상윤 '해외도피'로 먼저 기소할 듯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KH그룹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8일 최문순(67) 전 강원도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입찰방해 혐의로 최 전 지사를 불러 오후 11시 5분께까지 약 13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최 전 지지를 상대로 알펜시아 입찰 전 KH 측과 공모해 낙찰자로 선정하기 위해 입찰 정보를 흘리는 방법으로 개입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지사는 자신의 혐의를 일관되게 전면 부인했다. 그는 조사를 끝마치고 검찰 청사를 나서면서도 "우리는 최종 입찰 가격을 알려줄 수 있는 정보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입찰가를 알려줬다는) '알펜시아 매각 협상(안)' 문건을 보면 강원도 입장에서 '이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최소한의 가격이 8천억원으로 돼있다. 비밀문서가 아니고 언론에 공개되고 도의

매각 과정이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강원도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도의 재정난 등으로 알펜시아를 공개 매각하려 했지만 4차례 유찰됐다.

이후 2021년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KH그룹 산하 특수목적법인(SPC) KH강원개발㈜에 총액 7천 115억원으로 알펜시아리조트를 매각했다.

당시 입찰에 KH그룹 계열사인 KH강원개발과 KH리츠만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최 전 지사 등이 알펜시아의 자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저평가해 혈값에 매각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졌다.

검찰은 KH강원개발이 알펜시아리조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최 전 지사와 KH그룹 측이 계열사인 KH리츠를 허위 입찰자로 내세우기로 사전에 공모한 뒤 입찰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최 전 지사가 KH 측에 친전을 보내 4차 입찰 당시 최저 입찰금액을 알려줬다는 매각 담당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전 지사가 입찰 시작 전 서울 남산 하얏트호텔에서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만나 입찰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공범인 배 회장에 대한 조사 없이도 최 전 지사의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배 회장은 1년 넘게 사업상 이유를 들어 동남아시아에 체류중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 전 지사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먼저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 장원석 기자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우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BUSAN, KOREA

player 모집

너답게 다 플레이 해

신한 p_{play}

빠른 경제하는
성격 급한 플레이어
한 눈에 자신 관리하는
관리가 필요한 플레이어
컨텐츠 추천 받는
관심사 편식 플레이어
신분증 업로드 증명서까지
기록하는 플레이어
커민 퍼터 새 관심사 찾는
무한 도전 플레이어
커민 퍼터 새 관심사 찾는
무한 도전 플레이어

신한Pay 기반으로 편리한 금융 서비스와 다양한 라이프 콘텐츠 등
마이데이터 시대를 함께 할 신한카드의 대표적인 종합생활금융 플랫폼

준법감사 실무자를 제20230418-Cpn-001호(2023.04.18~2024.04.17)

1Lead by 신한카드

“막걸리에서 ‘영탁’ 떼라”…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승소

법원 “예천양조가 허락받고 대가 지급했다고 오인할 수 있어”

‘영탁 막걸리’를 두고 제조사 예천양조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수 영탁이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되며 이미 제조한 제품에서도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영탁’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를 계속 사용한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허락받아 재판부는 이 막걸리가 출시된 2020년 예천양조의 매



영탁막걸리 광고모델로 활약했던 영탁

출액은 약 50억원으로 전년대비 4.245% 증가했고,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영탁’이 막걸리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제3자가 접유 중인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각하였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그해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그러나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예천양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달 25일 항소장을 냈다.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은 2021년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 채정민 기자



임금 떼먹고 직원들 날벼락 해고 후

잠적한 ‘악덕 사장’ 실형

근로자들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갑작스레 해고를 통보하고는 잠적한 ‘악덕 사장’이 법원의 실형 판결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결과는 뒤바뀌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과기환 송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통신기기 소매업을 운영한 A씨는 근로자 8명의 임금 6천200여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자들에게 ‘일주일 안에 퇴사하라’며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7명의 해고예고수당 2천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와 퇴직금 6천5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이 같은 범죄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단 한 차례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 이호중 기자

자녀 앞에서 흉기로 이웃 찌른 살인미수 50대, 2심도 징역 4년



느냐”고 큰 소리로 따지다가 범행에 이르렀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흉기로 매우 힘껏 찔린 것으로 보이고, 2천cc에 달하는 과다출혈이 있었던 점, ‘사건 당일 수술을 받지 못했으면 사망했을 것’이라는 의사

어린 자녀 앞에서 이웃을 흉기로 찌른 뒤 구호 조치 없이 술을 마시고 잠이 든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양구군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자신의 아들과 저녁을 먹고 귀가한 이웃 B(6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A씨 몰래 그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에 불만을 품던 종범행 당일 B씨에게 “왜 돈을 빌려줬

소견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술을 마셔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A씨가 범행 직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되레 편의점에서 술을 사 와서 마신 뒤 잠을 자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어도 괜찮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은 살핀 재판부는 “어린 자녀가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찌르고 구호 조치 없이 술을 먹고 잠이 들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손현민 기자

조국 무혐의 주장했다가 ‘상갓집 항명’ 심재철 검사장 사직



‘추미애 라인’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며 이른바 ‘윤석열 사단’과 대립했던 심재철(54·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겸찰을 떠난다.

2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날 심 검사장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의원면직 인사를 냈다.

그는 2020년 이른바 ‘상갓집 항명 사태’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심 검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시비리 등 혐의에 ‘무혐의’를 주장한 것을 두고 직속 부하였던 양석조(50·연수원 29기) 검사가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보라”,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한 사건이다.

심 검사장은 이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자리리를 옮겼다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뤄진 첫 겸찰 인사

/ 양근수 기자

‘프로축구 입단 뒷돈’ 임종현 전 감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프로축구 팀에 선수를 입단 시켜주는 대가로 뒷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임종현 전 K리그2 안산그리너스 감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임 전 감독은 2018~2019년 태국 네이비FC 감독 재직 당시 한국인 선수 2명을 선발하는 대가로 에이전트 최모씨로부터

/ 송원기 기자



K관광의 랜드마크

KDB산업은행

K금융의 랜드마크

대한민국 산업의 신성장 동력, K-관광
KDB산업은행이 한국방문의 해를 응원합니다

모스크바 경제 중심부에 날아온 드론…건물 파손·공항 폐쇄

한밤중 드론 3대 날아들어 1대 요격·2대 추락…경비원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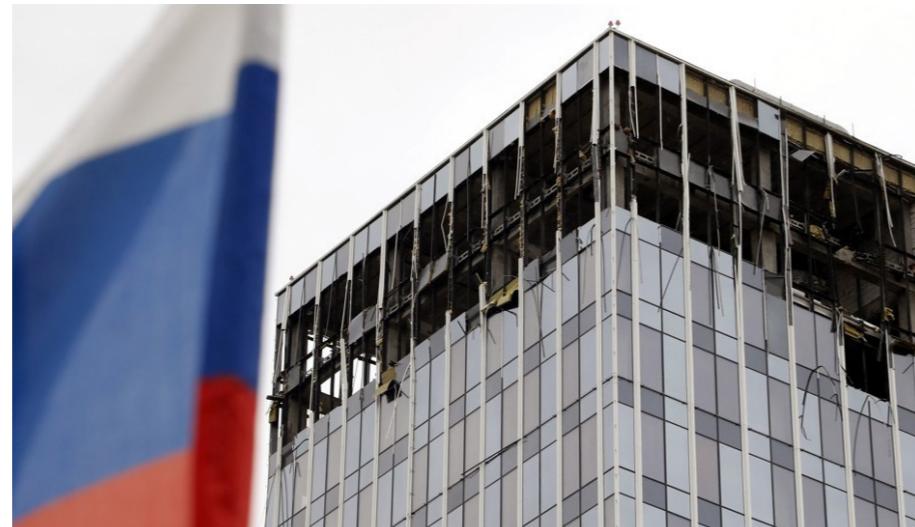
30일(현지시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중심가가 드론 공격을 받아 고층 오피스 건물이 일부 파손됐다. 로이터, AP, AFP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소비닌 모스크바 시장은 이날 새벽 모스크바 시내의 오피스 건물 2동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드론 3대가 모스크바로 날아왔는데, 이 중 한대는 러시아 방공망에 공중 요격됐으나 나머지 2대는 모스크바 시내까지 와서 전파 교란을 받고 추락했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밝혔다.

이곳은 모스크바 내에서 현대식 고층 건물이 모여 있는 경제 중심지인 '모스크바 시티' 경제구역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 공격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경비원 한명이 경비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당국은 모스크바 근처 공항 1곳을 일시 폐쇄했다가 운항을 재개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드론 공격은 우크라이나의 테러리스트 공격 시도"라고



지난 24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드론 공격을 받은 건물

주장했다.

모스크바를 겨냥한 공격은 이달 들어 이번까지 4차례 벌어진 것으로, 전쟁이 18개월에 접어든 가운데 모스크바가 공격 대응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AP는 전했다.

이날 공격과 관련해 우크라이나는 입장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500

km가량 떨어져 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모스크바에 대한 공격은 드물었으나, 최근에는 드론 공격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이달 초에는 드론 5대가 모스크바 남쪽 외곽 브누코보 국제공항 등을 공격했다가 러시아군 방어망에 의해 격추됐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다.

특히 이같은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두

달 가까이 영토 수복을 위한 반격 작전을 벌이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지난 24일 모스크바 시내 국방부 건물에서 가까운 비거주용 건물 2동이 드론 공격을 받았을 때는 우크라이나 국방 소식통이 그들의 특수작전임을 인정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날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에도 우크라이나 드론 25대가 날아와 전부 격추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전했다.

드론 16대는 대공망으로 파괴했고, 나머지 9대는 전자전 도구로 추락시켰다고 국방부는 주장했다.

러시아는 이같은 드론 공격은 우크라이나의 소행으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 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모스크바 드론 공격과 관련해 "러시아 본토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 송진영 기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법원서 CNN에 패소

'히틀러 비유로 명예훼손' 기각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아돌프 히틀러에게 비유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CNN 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포트로데일 연방법원의 라그 싱할 판사가 전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법원에 CNN 방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4억7천5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CNN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사기 주장에 보도하면서 '큰 거짓말(Big Lie)'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히틀러를 연상시켰다는 것이다.

이 표현은 선전 목적 등을 위해 진실을 완전히 왜곡한다는 의미로 히틀러가 자신의 저서 '마인 캠프'(나의 투쟁)에서

사용했다.

그러나 싱할 판사는 "CNN이 트럼프의 선거 주장과 관련해 '큰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트럼프가 유대

인이나 다른 집단의 백화와 대량 학살을 응호한다고 암시했다고 볼 수 없다. 그 어떤 합리적인 시청자도 그렇게 관련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그는 CNN이 사용한 표현은 사실이 아닌 의견으로 명예훼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싱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임명됐다.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언론을 대상으로 여러 소송을 제기해왔다.

/ 강호영 기자

日후쿠시마 어민, 원전 장관에 “불안 없앨 대책 마련해 달라”

경산상, 이틀 연속 어민들과 면담…“후쿠시마 어업 책임지겠다”



오염수 문제로 대면한 일본 경제산업상과 후쿠시마 어민

정부가 소문(풍평)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한 300억엔(약 2천710억원)의 기금을 오염수 방류 전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전날 후쿠시마현과 인접한 미야기현 어민들과의 면담에서도 같은 방침을 전달한 바 있다.

곤노 조합장은 니시무라 경제산업상과 면담을 마친 이후 취재진에게 국가의 설명이 이전과 같아 방류를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하고 "경제산업상이 모든 조합원 앞에서 (방류 계획 등을) 설명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본 각료들은 올해 여름으로 예고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를 앞두고 최근 원전 주변 어민들을 부쩍 많이 만나고 있다. 하지만 어민들은 이 지역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방류를 시작하기 전에 사카모토 마사노부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후쿠시마의 어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며

일본 정부는 국내에서 어민들에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동영상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이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만든 동영상은 공개 3개 월여 만에 조회수 500만 회를 돌파했다.

/ 흥운찬 기자

삼성생명은
생각했습니다



당신을 웃게 할 소식이 되자

아플 때, 걱정될 때 생각나는 보험을 넘어 언제라도 반가운 보험이 되고 싶습니다.
더 건강하게, 더 든든하게
당신의 인생에 좋은 소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의 시작

이 광고의 모든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

中침공 대비 훈련 마친 대만, 8월엔 미사일 발사 훈련

중국의 침공에 대비한 한광 훈련을 마친 대만이 곧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대만 정부 관계자는 내달부터 대만 해·공군의 연례 미사일 실사격 발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만 해순서(해경)는 8월 중순께 대만 국방 산연구소인 국가중산과학연구원(NCSIST)이 개발한 사거리 10km의 2.75인치(70mm) 유도 로켓인 '전하이'(鎮海) 로켓탄 등을 포함한 소속 함정의 무기 시스템의 실사격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만 공군사령부는 8월 1일부터 25일까지 대만 동남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공대공·공대함 미사일 및 각종 방공 미사일 등의 발사를 위한 각기 다른 해상 사격 통제 구역을 설정했다. 해순서의 북부지구 기동 해순부대는 소속 4천톤(t)급 신주함과 3천톤급인 이란함(CG-128) 등을 투입, 전하이 로켓탄 등 무기 시스템의 사격 훈련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해순서 난사지휘부는 대만이 실효 지배 중인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의 타이핑다오(영문명 이투 아바)에서 실사격 훈련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타이핑다오 해역 주변 5해리(약 9km)와 1만2천 피트(약 3.6km) 상공에 주의를 발령했다. 대만 언론은 특히 해상 사격 통제 2구역은 남부 평동의 주평 기지에서 동부 외곽 도서인 란위와 뤰다오의 동쪽 100km까지 포함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항공모함 킬러'라는 별칭이 있는 사거리 400km의 승평-3 초음속 미사일과 사거리로 개선한 승평-3 초음속 미사일의 실사격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 최규민 기자

철근 빠진 아파트 더 있었다…LH 15개 단지서 무더기 누락 확인

지하주차장 무량판구조 적용 91개 단지 전수조사 결과

인천 겸단의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봉고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이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무더기로 확인됐다. 겸단 아파트처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밭주 아파트를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었다.

정부는 민간 밭주 아파트 100여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라. 철근 누락 아파트는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LH 서울지역 본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LH는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LH 밭주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91개 단지 중 이미 준공된 단지는 38개(38%), 공사 중인 단지는 56개(62%)다.

조사 결과 15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재시공 결정된 겸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한다. 그런데 필요한 만큼의 철근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10개 단지는 설계 미흡으로 철근이 빠져 있었다. 구조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구조계산은 제대로 됐으나 설계 도면에 전단보강근 표기를 빠뜨린 사례가 나왔다.

5개 단지는 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근이 빠진 15개 아파트의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를 초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드러난 곳 종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5개 단지다.

LH는 입주한 4개 단지에서 정밀안전점검을 추진 중이며, 이 단지에서는 보완 공사를 할 예정이다. 1개 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보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입주 전인 단지 10개 단지다.

입주 전 단지 중 6개 단지는 보완 공사 중이며, 4개 단지는 입주 전 보완 공사가 마침 예정이라고 LH는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원 장관은 LH에 "무량판 구조로 설계·시공하면서 전단보강근 등 필수 설계와 시공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와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철근 누락) 15개 단지의 설계·감리가 언제 밭주됐고, 여기에 관여된 사람은 누구인지 조사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관련자가 책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원 장관과 이 사장은 LH 철근 누락과 경기 시흥 은계지구 상수관 문제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전면적인 인사 조치와 수사 의뢰, 고발 조치 등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 강민성 기자



SKT “3천원 추가하면 가족 5인까지 로밍, 이용 가구 70% 선택”

SK텔레콤은 가족 대표가 해외 로밍 요금제에 가입하면 최대 5명이 함께 로밍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가족 로밍 상품 이용자가 출시 한 달 만에 3만 가구, 7만 명을 넘어서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가족 로밍 상품 출시 이후 해외 로밍 이용 가구 중 약 70%가 이용한 것이라고 SK텔레콤은 설명했다. 가족 로밍은 '바로 요금제'에 가입한 가족 대표 1명이 3천원만 추가로 내면 최대 5명이 데이터를 나눠 쓸 수 있는 서비스다. 통화와 문자 메시지 이용은 무제한이다.

'0청년 요금제'를 이용하는 청년 가입자는 바로 요금제에 가입하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5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또, 다음 달 31일까지 무신사와 UT 택시 할인권 제공 이벤트 대상이 된다.

/ 민자환 기자

올 하반기 300만4천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적용

올해 하반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00만4천개의 가맹점 등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여신금융협회가 우대수수료를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9월부터 환급한다.

올해 상반기 새로 개업한 가맹점 중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9만4천개에 대해 약 65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 백성호 기자

1.5%와 체크카드 1.25%의 수수료가 각각 적용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9월부터 환급한다.

올해 상반기 새로 개업한 가맹점 중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9만4천개에 대해 약 65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 백성호 기자

폭염에 냉감 소재 침구 인기…현대百, 매출 증가



인기 제품은 재생산에 들어가기도 했다.

현대백화점은 이런 추세를 고려해 전국 주요 매장에서 여름 침구를 최대 3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더현대서울과 목동점에서는 독일 침구 브랜드 '파라다이스'의 냉감 패드 등을 선보이고, 천호점과 신촌점, 더현대대구에는 침구 편집 매장도 운영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폭염과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수면의 질을 좌우하는 침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프리미엄 제품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문용성 기자

LG전자, 이탈리아 밀라노서 ‘라이프스굿’ 플래시몹 행사



은 '라이프스굿' 티셔츠를 입고 광장에 흩어져 있다가 정해진 시간에 정사각형 대열을 만들어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펼쳤다.

LG전자는 이탈리아 법인 임직원들이 지난 28일(현지시간) 밀라노 지노 발레 광장에서 브랜드 슬로건 '라이프스굿'(Life's Good)을 주제로 플래시몹 행사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주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약 100명

/ 이규한 기자



경기부동산포털 내 강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

건물명, 도로명, 지번등을 입력하여 부동산 정보를 검색하세요


검색

「이사 갈 집이 깡통 전(월)세가
의심된다면 검색하세요!」

이용방법

- 사용자가 지도를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정보)”가 표시되며, 거래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음
- 계약 전·후 할 일 및 깡통전세 유형정보 제공
- 깡통전세가 의심되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바로가기 연결 (<https://consult.kapanet.or.kr>)



서울시, 전국 최초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 내달 운영

맞춤 상담·서비스 신청 지원…오세훈 “단편 지원보다 빈틈없는 정책 중요”

서울시는 가족을 부양하는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8월부터 전국 최초로 전담기구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 마포구 서울시복지재단 내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를 개관한다. 이곳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의 심리상태, 소득, 돌봄 생활 등을 토대로 맞춤형 상담을 하고 필요한 정책으로 연계해주거나 각종 서비스 신청을 지원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 복지법인 등 다양한 지원과 연계해 주택과 병간호·생활 등을 지원하고 교육청, 동 주민센터, 병원 등과 협력해 지원 대상을 찾아 전담 기구로 안내한다.

구체적으로 동 주민센터, 자치구 복지상담센터 등 최일선 현장에서 가족돌봄청년으로 추정되는 대상을 찾으면 전담 기구로 연계하고 초기 상담과 주요 정책 안내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가족돌봄청년 간담회

이어 개별 심층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책을 연계하거나 각종 서비스 신청을 지원하고,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됐는지 등 사후관리를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시는 하반기 중 가족돌봄청년 유형별 관련 기관 협의체를 구축해 체계적인 대상자 발견과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 주기로 실태조사도 할 방침이다.

또 돌봄청년의 심리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자조 모임과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교류를 지원한다.

아직 생소한 용어인 가족돌봄청년의 개념과 사업 내용, 전담 기구 활용 방법 등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반기에 공무원,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일반 시민 홍보도 병행한다.

양주시 이어 동두천시도 '국제 스피드스케이팅장' 유치 경쟁

경기 동두천시는 2024년 철거 예정인 태릉 스피드스케이팅장을 대신할 '국제 스피드스케이팅장'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양주시도 국제 스피드스케이팅장 유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동두천시는 해체된 빙상단(2001~2019

년 운영)을 옮겨 재창단하는 등 빙상 스포츠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쇼트트랙 빙상장과 국제 스피드스케이팅장 후보지 물색을 마치고 타당성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박현덕 동두천시장은 "김동성, 차민규 등 걸출한 동계스포츠 스타를 배출한 동

두천시야말로 빙상의 원조 도시"라며 국제 스피드스케이팅장 유치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한편, 서울 노원구에 있는 태릉 국제 스피드스케이팅장은 태릉 일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철거를 앞두고 있다.

/ 광명호 기자

기존의 정책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8월 중순부터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참여하고 싶은 민간 지원을 활용해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분야별로 추가 지원한다.

도움이 필요한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은 누구든지 상담 전화(☎ 02-6353-0336~9)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22일 가족돌봄청년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현실적인 어려움과 필요한 정책 지원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오 시장은 "다양한 복지정책에도 여전히 소외된 가족돌봄청년을 제도권 내에 흡수하려면 단편적 지원보다는 다양한 사례의 유형화와 빈틈 해소를 위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족한 부분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순철 기자



의정부 경전철

서울·인천 이어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요금

'150원 인상'…10월 7일부터 적용

내달 4일 공청회 뒤 기본요금

1천250원→1천400원

의정부와 용인 경전철 등 경기 지역 5개 도시철도의 기본요금이 10월 7일부터 150원 인상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인천시의 전철 요금 인상과 관련해 경기지역 도시철도 운임 범위 조정을 위한 공청회를 다음 달 4일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연다고 28일 밝혔다.

요금 인상 대상 경기지역 도시철도는 의정부 경전철, 용인 경전철, 김포 도시철도 5호선 연장 하남선, 7호선 연장 부천 구간 등 5개 노선이다.

그동안 수도권 통합환승요금 적용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동일한 요금으로 전철을

운영했다.

앞서 서울시는 전철 기본요금 1천250원에서 1천400원으로 인상해 10월 7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인천시도 인천지하철 1·2호선의 같은 폭의 요금 인상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도시철도 기본요금도 현재 1천250원에서 1천400원으로 150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다음 달 4일 공청회에 이어 다음 달 중순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상 폭을 확정한 뒤 10월 7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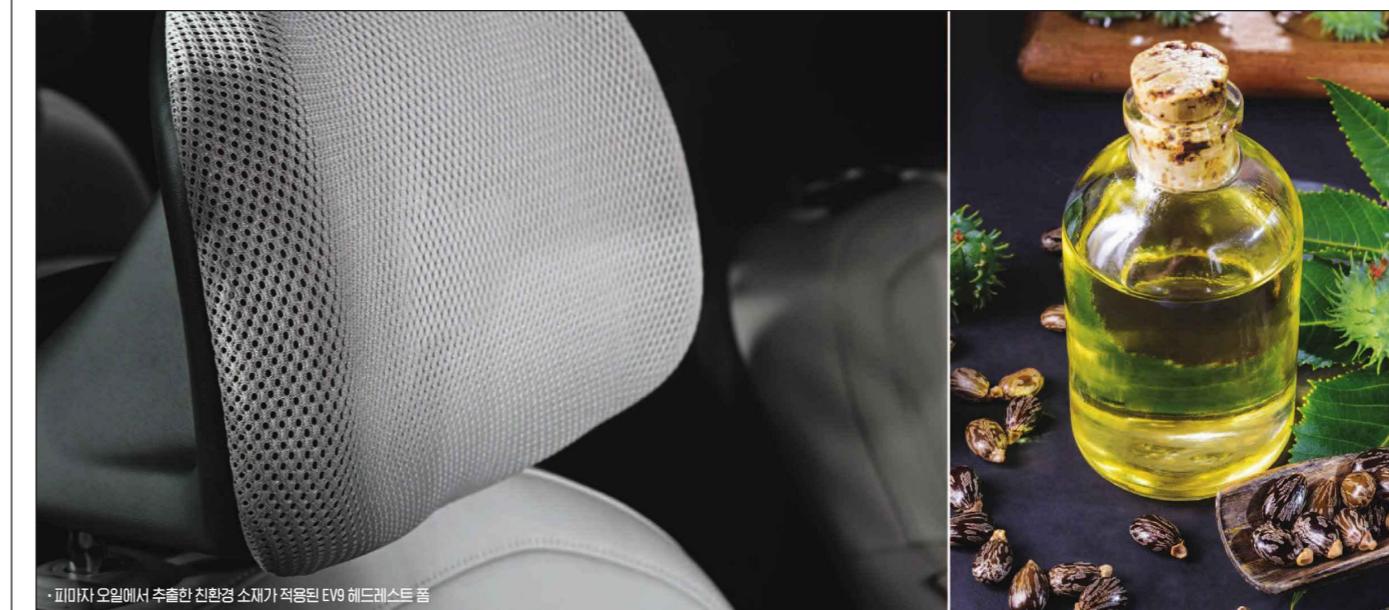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 통합환승요금 적용에 따라 서울, 인천과 같은 수준으로 도시철도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며 "10월 7일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윤석현 기자



동두천시 빙상단 재창단

2023년 4월 13일(목) 15:00 시청 대회



· 피마자 오일에서 추출한 친환경 소재가 적용된 EV9 헤드레스트

· 옥수수에서 추출한 바이오 소재가 합우린 EV9 시트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여행 환전 어땠어? 좋았어!

NH농협은행의 환전 서비스와 함께
소중한 휴가를 더 완벽하게



세븐세븐세븐

777

환전·송금의
행운을 찾아서

EVENT 1

NH은행 「알뜰!환전」에서 최고 90% 환율우대 받고 1,000명 경품 당첨의 기회까지
올여름, 더블 혜택으로 드리는 시원한 행운을 받으세요



1등 / 3명
스파 마사지 바우처
50만 원 상당



2등 / 5명
항공 모바일 금액권
30만 원권



3등 / 15명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4등 / 200명
간편결제 서비스 포인트
2만 원권



5등 / 777명
생활용품점 상품권
5천 원권

자세히 보기



EVENT 2

개인 고객 777명에게 NH포인트 1만점
거래 외국환은행 신규 지정 등록하고
건당 미화 \$500 상당액 이상
해외 송금거래 원료 시

EVENT 3

모든 통화 환율우대 77%
영업점 창구에서 해외송금 거래하는
개인 고객 (일반 당별 송금에 한함)

EVENT 4

와이파이도시락 15% 할인
환전·해외송금 거래하는 모든 개인 고객

*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H은행 이벤트 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 1661-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알뜰!환전」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안내장 작성일 현재 기준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서비스 이용약관을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 1661-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벤트 당첨자 중 수령 주소, 휴대폰 번호 오류, 수령거절 등의 고객사유로 1개월 이상 경품 미수령 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이벤트는 NH농협은행의 시점으로 변경 또는 충전될 수 있으며 이벤트 경품은 시점상 동일금액과 다른 상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벤트 응모는 1인 1회 가능하며, 이벤트 1과 2는 중복 당첨 가능합니다. * 본 이벤트는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한 고객에 한하며, 실물 경품 발송을 위해 당첨자의 성명, 수령 주소, 휴대폰 번호가 쭉챌리블루에 제공되며, 경품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즉시 폐기됩니다. * 모바일 쿠폰의 발송을 위해 당첨자의 성명, 휴대폰 번호가 쭉챌리블루, 씽케이트알파에 제공되며, 쿠폰 유효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즉시 폐기됩니다. * 모바일 상품권은 음모시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됩니다. * 티웨이항공 금액권은 [모바일] 카카오톡 선불카드를 통해 발송되며, 카카오톡 계정이 없는 경우 발송이 불가합니다. 발신인 쭉챌리블루 * 5만 원 초과 경품 수령 시 제세공과금은 NH농협은행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은 대상 고객님의 기타 소득으로 귀속됩니다. 제세공과금 신고를 위한 절차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당첨이 취소됩니다. * 모바일쿠폰은 이벤트 기간 종료 후 당첨자에 한하여 개별 발송됩니다.

준법감사인 심의일: 2023.07.04~2024.06.30

World EXPO 2030
BUSAN, KOREA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NH농협은행이 응원합니다

NH농협은행

“핵오염수 투기 반대” 폭염 속 거리 나선 제주 청소년들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과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반대하는 제주청소년들이’ 30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지역 청소년들이 일본 핵 오염수 투기 계획에 반대하며 폭염 속 거리로 나섰다.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과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반대하는 제주청소년들’은 30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육상인의 축제’ 세계마스터즈육상대회 2026년 대구서 열린다

가족동반으로 여름휴가 보내는 스포츠 축제

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가 2026년 8월 대구에서 개최된다.

대구시는 세계마스터즈육상연맹(WMA)과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대회는 1985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첫 대회가 열린 것을 시작으로 실내·실외 경기가 격년으로 개최된다.



35세 이상 참가자가 항공료, 숙박비, 참가비 등을 자부담으로 해 열리는 유일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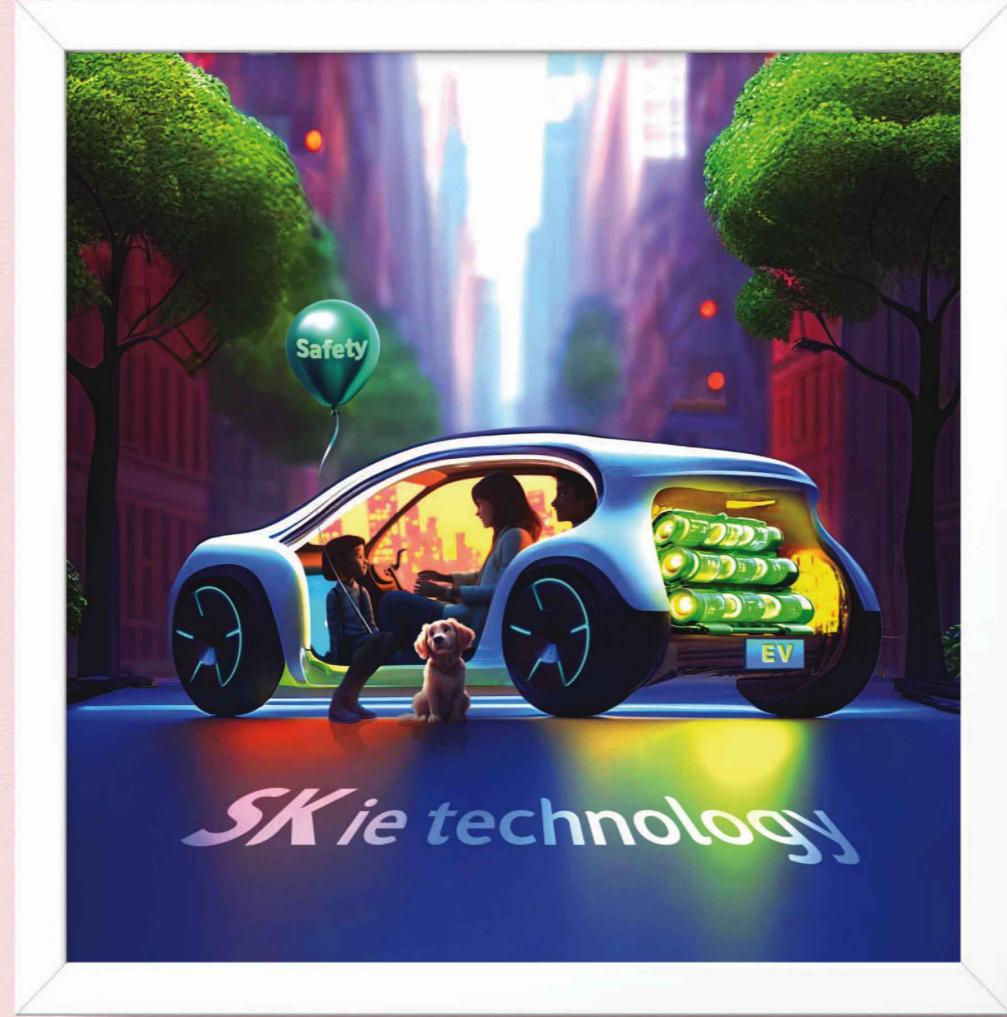
세계육상경기대회로 경쟁보다는 개최지에서 가족동반으로 여름휴기를 보내는 스

지구를 위한 그린플루언서 SK ie technology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AVE



[이 작품은 다음 키워드를 기반으로 SK이노베이션과 AI가 함께 그린픽처입니다]

#전기차 부품 혁신 기술 #배터리분리막 #안전한 #세계를 움직이는

작품명 안전한 기술이 태고 있어요

SK아이티테크놀로지의 CES* 혁신상 수상에 빛나는 배터리 분리막 기술력이 전 세계 전기차를 안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CES (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SK아이티테크놀로지의 그린픽쳐

SK innovation SK energy SK geo centric SK on SK enmove SK incheon petrochem SK trading international SK ie technology SK earthon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오염수 육상 보관 등의 대안에 대해 충분히 고려했나. 그저 시간과 돈이 적게 듣다는 이유로, 원전 문제에서 벗어났다는 일본의 이미지 회복만을 위해 주변국에 불안과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제주도정을 향해 “도민 안전을 해치는 오염수 투기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정부와 함께 논의의 장을 마련해 국제적 파트너십을 요구하고 이 문제를 이슈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후 손팻말과 현수막, 방사능 경고 표시가 그려진 우산 등을 들고 제주도청에서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까지 도심을 행진했으며, 이후 제주 동문시장에서 선전전을 벌였다.

/ 김민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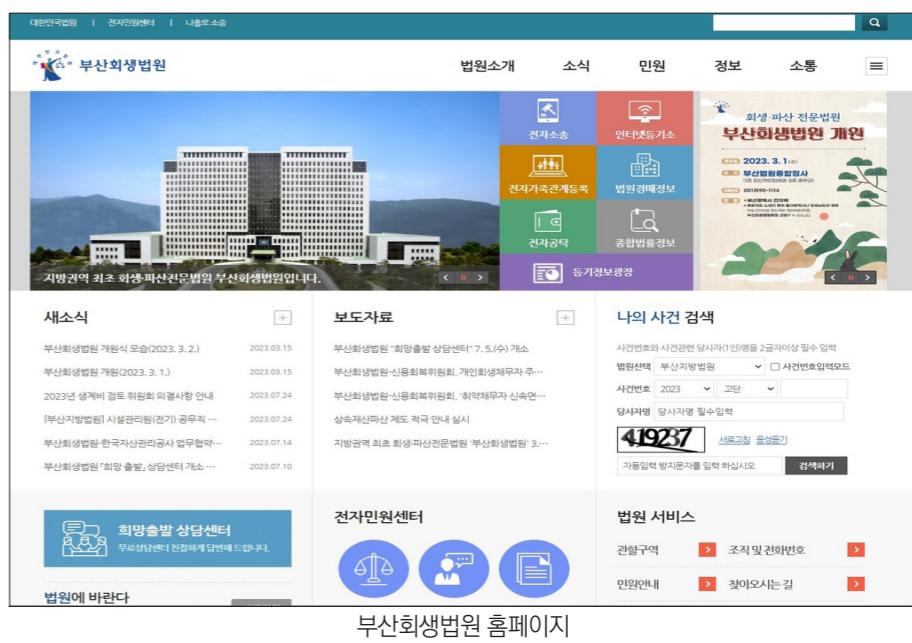
포츠 축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2026년 대회는 8월 중 14일간 90개국, 1만1천여명이 참가해 트랙 19종목, 필드 11종목, 로드 6종목 등 36개 종목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마тик 정만(Marit Jungmann) WMA 회장의 협약 체결에 따라 양측은 참가자 모집 등 경기 운영 지원, 온·오프라인 매체 및 SNS를 활용한 대회 홍보 지원, 참가자 체류 지원 등에서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홍 시장은 “이 대회를 계기로 대구가 국제육상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지호 기자



부산회생법원 개원 후 개인회생사건

80% 증가…실업 등도 영향

부산회생법원이 올해 3월 개원한 이후 회생·파산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회생법원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접수한 개인회생사건은 3천229건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천 805건보다 78.9% 증가한 수치다.

개인파산사건도 지난해 3~6월 921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천274건으로 38.3% 증가했다.

부산회생법원의 개원 이후 개인파산 사건의 처리 속도는 크게 빨라졌다.

지난해 부산지법에서 개인파산 접수부터 파산 선고까지 걸린 시간이 114.9일이었으나 올해 3월 회생법원 개원 이후에는 104.1일로 열흘 정도 단축됐다.

파산 접수부터 면책 인용 결정까지는 지난해에 339.5일이 걸렸으나 올해는 293.9일로 줄었다.

/ 김민중 기자

창원해경,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된 민간 응급구조대 창설



창원해양경찰서는 28일 전문의료진으로만 구성된 민간해양구조대 소속 응급구조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설했다고 밝혔다.

민간해양구조대는 1997년 경남 통영에서 처음 조직된 자율봉사단체로 현재는 어민, 레저사업자, 잠수사 등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창원해경은 민간해양구조대를 구조 유형에 따라 응급구조대, 선박구조대, 수중구조대, 드론수색대 등으로 분류한다.

응급구조대가 전문 의료진들로만 구성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창원해경은 선박과 화물선 등에서

인명사고 발생 시 전문 응급구조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경남 도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32명의 전문 의료종사자를 모집했다.

그 결과 의사 2명과 간호사 29명, 응급구조사 1명 등이 자원했고, 전문 의료진으로만 구성된 응급구조대가 만들어졌다.

이날 창설식은 연 창원해경은 민·관 구조 협력체계에서 민간해양구조대의 중요성과 신설된 응급구조대의 정의와 역할 등 의료봉사를 위한 간담회도 실시했다.

장대운 창원해양경찰서장은 “수난 대비 기본 훈련 등 실제 훈련 참가를 통해 응급구조대의 전문성을 구축하고, 대령인명사고 대비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체계 확립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강우 기자

제주2공항 반대측 “오영훈 ‘주민투표 어렵다’며 국토부 둘러리”

제주 제2공항 추진을 반대하는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끝내 도민의 대표이기를 저버리고 국토교통부의 둘러리 역할이나 한다면 도민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오영훈 지사는 국토부에 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도민 자기 결정권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2공항 문제야말로 주민투표법의 취지에 따라 주민투표를 해야 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며 “대다수 도민이 찬반을 넘어 제2공항 추진 여부를 도민 스스로 결정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미 국토부가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법상 국가정책 수립에 관한 조언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해당 부처 장관(국토부 장관)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 권정석 기자



제주2공항 주민투표 요구하는 시민단체

캐스퍼를 만나는 놀라운 방법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구매까지



캐스퍼 디 에센셜 라이트 출시

실용적인 사양, 부담 없는 가격의 디 에센셜 라이트를 캐스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HYUNDAI

Bluehands
차량판매 서비스는 blue hands가 책임지겠습니다
회원에게: 출부증명 서비스 이용금액 일부포인트 제공서비스

■ 캐스퍼 전용 구입 문의 전화 및 고객센터: 080-500-6000 ■ 정부 공인 표준연비 ▶ 스마트스토빌 기술한 1.0 자동 4단(기변속) 세단 13.8km/ℓ (도심 13.0km/ℓ, 고속도로 14.8km/ℓ) | CO2 배출량: 110g/km | 배기량: 998cc | 중량: 1,020kg | 충급: 강정 ▶ 기파 1.0 터보 자동 4단(기변속) 세단 12.8km/ℓ(도심 11.3km/ℓ, 고속도로 15.2km/ℓ) | CO2 배출량: 130g/km | 배기량: 998cc | 중량: 1,030kg | 충급: 강정 ▶ 기파 1.0 터보 자동 4단(기변속) 세단 12.3km/ℓ (도심 11.0km/ℓ, 고속도로 14.2km/ℓ) | CO2 배출량: 136g/km | 배기량: 998cc | 중량: 1,030kg | 충급: 강정 ※ 이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저항학재, 정비상태 및 의 기본도록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충급량, 충기속 및 금제동을 하지 않습니다. ※ 등록주장을 합니다.

원주 열병합발전소 빌미 거액 사기·횡령 50대 15년형→5년형

배임수재·사기 혐의 일부 무죄…“범행 금액 = 이득 단정 어려워”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필수시설인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자금을 빌린 뒤 깊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대폭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열병합발전소 사업 수행 가능성이 없는데도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23억5천만원을 빌린 뒤 연료 납품을 하게 해 주겠다고 속여 4억8천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기 동생이 대표로 있는 에너지 관련 업체의 자본금 35억원을 횡령하는 등 5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9



원주 SRF 열병합발전소 “반대” 손팻말

천100여만원의 직원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검찰 구형

(징역 10년)보다 많은 징역 15년의 중형을 내렸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4억8천100만원 배임수재 혐의와 사기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임이 분명함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소로 다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각 범행으로 실제 취한 이득이 얼마인지, 에너지 관련 업체에 끼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자료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며 “돌려막기로 깊은 과정에서 편취액이 확대된 점과 횡령·배임 범행 금액과 현실적으로 취한 이득이 일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백경준 기자



화순탄광 폐광

폐광 화순광업소 협력업체 직원 12명

근로자지위 인정, 차액 임금 보존

지난달 말 폐광한 화순광업소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뒤늦게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아 그동안 차액 임금을 보존 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화순광업소 협력업체 직원 13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의 소’에서 1명을 제외한 12명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원고 13명 모두에게 2022~2023년 차액 임금 3천900여만~1억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도 판결했다.

원고들은 사실상 대한석탄공사 측의 지시·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해 근로자 지위가 있음에도 석탄공사 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 김성윤 기자

피고인 석탄공사 측은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다”며 근로계약 관계 성립 자체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는 바뀌더라도 근로자들은 고용 승계돼 계속 근무했고, 석탄공사 측이 인사에 관여하는 등 원고들이 피고 측에 종속적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뚜렷한 근로계약 관계가 있었다고 봄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는 취업규칙·단체 협약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한 임금 사이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화순탄광은 지난달 30일을 조기 폐광돼 탄광 역사 118년에 마침표를 찍었다. / 김성윤 기자

“수해 복승아 농가 도와주세요” 조치원복승아축제 내달 4일 개막

문화행사 최대한 자제…수해 농가 돋기 위한 판촉 행사 중심으로 진행



세종시 조치원복승아의 참맛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제21회 조치원복승아축제’가 다음 달 4~6일 세종시민운동장을 비

롯한 조치원읍 일원에서 개최된다. 27일 세종시문화재단에 따르면 올해 조치원복승아축제는 시민의 흥을 돋우는

문화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는 대신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돋기 위한 판촉 행사 중심으로 진행된다.

NH농협이 주관하는 복승아 판매전은 세종시민운동장에서 4일 오전 10시부터 펼쳐진다. 1상자(3kg) 기준 7~9과는 2만 6천원, 10~11과는 2천2천원에 판매된다.

복승아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쿠폰 이벤트도 운영된다. 사전이벤트는 세종시문화재단 축제문화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진행되고, 현장에서는 흥보부스에서 참여하면 된다. 포토존에서 사진 찍기와 SNS 게시, 설문조사 등을 통해 복승아 5

천원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재단은 홍보판매 촉진을 위해 복승아 가 ‘신선’들이 먹는 과일이라는 점에 착안해 ‘115년 역사의 신선한 조치원 복승아’를 테마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김혜옥 세종시문화재단 예술사업본부장은 “수해로 시름에 잠긴 지역 복승아 재배 농가가 이 축제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농촌진흥청 전신인 권업모범장이 1908년 조치원읍 봉산리에 과수 시범포를 설치하면서 복승아를 집중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했다. 현재 조치원읍과 연서면을 중심으로 700여 농가가 350여ha에서 복승아를 재배하고 있다. / 황연희 기자

로가 막혔다.

이에 따라 바다와 민물을 오가며 산란·성장하는 벤장어 등의 수산자원이 사라졌다.

그러나 최근 삽교호와 아산호의 배수갑문 보수공사로 어류가 소통할 수 있는 어도가 설치돼 생태계의 작은 변화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박경귀 시장은 영인면 구성리에서 열린 방류행사에서 “지속적인 방류사업 확대로 안정적인 수산자원을 확보하고 어민들의 소득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매년 1억5천만원가량을 투자해 치어 방류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에 이어 아산호에 ‘벵어’ 자원 조성을 위해 수정란 560만개를 이식했다.

My Amazing Oat mix 새롭게 즐기는 비건 오트 음료 어메이징 오트

새롭게 즐기는 비건 오트 음료
어메이징 오트



어메이징 오트
판매처

온라인: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 쿠팡, SSG.COM, 카카오 쇼핑하기, G마켓, 11번가, 마켓컬리, 위메프

오프라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올리브영, 현대백화점, SSG 청담, 코스트코

홈인스파레, GS더프레쉬마트, 롯데슈퍼, 롯데MAXX, 메가마트, 뉴코마트, 킴스클럽,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AK백화점

매일유업 소비자 상담
1588-1539

아산호·삽교호에 ‘뱀장어’ 치어 2만마리 방류



치어 방류하는 박경귀 시장(오른쪽 3번째)과 어민들

충남 아산시는 28일 영인면 구성리 아산호와 선장면 궁평리 삽교호에 뱀장어 치어 2만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아산호와 삽교호는 1973년과 1979년에 각각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방조제가 건설되면서 어류의 이동 통

세계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 도복 입고 태권도 체험한다

8월 1~12일 열리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하는 세계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를 체험한다. 28일 태권도진흥재단에 따르면 잼버리 기간에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이 전북 무주군 설천면 태권도원에서 태권도를 체험한다.

오는 30일과 8월 14일에는 멕시코 400여 명과 아일랜드·호주 참가자 480여 명이 태권도원을 찾아 상설공연 관람과 국립태권도박물관 견학을 통해 태권도를 즐기게 된다.

8월 2일부터 10일까지는 160여명의 참가자가 매일 태권도원에서 상설공연 관람과 전망대 견학, 헬링 태권체조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특히 참가자 전원이 태권도복을 착용하고 기본동작을 익히는 헬링 태권체조를



외국 청소년들 태권도 체험 장면

체험한다.

재단은 잼버리 조직위원회, 무주군 자원봉사센터 등과 협력해 태권도원 종합안내, 통역, 체험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태권도를 체험하는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태권도의 멋과 예의를 알려 잼버리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 대한민국 국격 신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최태윤 기자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고객이야기 # 안심로밍 # 제로프리미엄



“**해외에서는
마음이 놓여야
잘 다닐 수 있으니까!
U+안심로밍은 필수죠~**

예전엔 해외 나갈 때 유심만 생각했었는데,
해외에서 인증 필요할 때 문자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당황했던 후로는 꼭 U+안심로밍 해갑니다.
해외에서 사용하는지 모를 만큼 데이터 속도, 품질,
문자도 완벽하고, 시간대랑 기간만 신청하면
무제한 편하게 쓸 수 있어 좋아요. 공항 갈 때
신청도 카톡으로 되니까 말 그대로 안심로밍이죠!

‘유플러스 10년 차 고객 김병채님’



QR코드 스캔하고 김병채님의
와이낫 스토리 더 보러 가기

이런 생각, 김병채님의
**WHY
NOT?**

유플러스 안심로밍

남자 혼계영 400M도 한국新…황선우 “한국수영 응원해주세요”

한국 남자 혼계영 400m '3분34초25'…대회 8번째 한국新

황선우(20·강원도청)를 마지막 영자로 세운 남자 혼계영 400m 대표팀이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

배영 이주호(28·서귀포시청), 평영 최동열(24·강원도청), 접영 김영범(17·강원체고), 자유형 황선우로 구성한 한국 남자 대표팀은 30일 일본 후쿠오카 마린메세 후쿠오카홀에서 열린 2023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혼계영 400m 예선에서 3분34초25로 레이스를 마쳤다.

올해 4월 한라배에서 김우민, 최동열, 양재훈, 황선우가 합작한 3분34초96을 0.71초 앞당긴 한국 신기록이다.

22개 팀 중 10위를 해 8위까지 얻는 결승행 티켓을 손에 넣지는 못했지만, 2019년 광주 대회 17위, 2022년 부다페스트 대회 13위 등 과거 세계선수권대회보다는 순위를 높였다. 또한, 단체전 한국 신기록을 달성해 상금 200만원(선수당 50만원)도 받았다. 결승행 막자를 탄 영국(3분33초27)과 한국의 격차는 0.98초였다.

개인 종목에서는 남자 자유형 200m 황선우(1분44초42), 자유형 800m 김우민(7분47초69), 평영 100m 최동열(59초59)이 기록 달성을 기쁨을 누렸다.



황선우, 김영범, 최동열, 이주호(왼쪽부터)가 30일 일본 후쿠오카 마린메세 후쿠오카홀에서 열린 2023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혼계영 400m 예선에서 3분34초25의 한국 신기록을 세운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 신기록을 세운 황선우는 대한수영연맹을 통해 “또 다른 한국 기록을 세우며 대회를 마쳐서 정말 기쁘다”며 “다가오는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 계속해서 기록을 단축했으면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행군이지만 마지막까지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과 국민 여러분 덕분에 혼계영 400m에서도 끝까지 힘낼 수 있었

다”며 “(31일에) 귀국하면 3~4일 정도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다시 수영하러 돌아와 곧바로 아시안게임을 위해 훈련할 예정이다. 세계선수권은 끝났지만, 아시안 게임과 파리 올림픽까지 더 큰 대회를 앞두고 있으니 계속해서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여자 혼계영 400m에서는 이

은지(17·방산고), 권세현(23·안양시청), 김서영(29·경북도청), 허연경(17·방산고)이 차례대로 뛰어들어 4분05초16으로, 23개 팀 중 18위를 했다.

여자 혼계영 400m 예선을 끝으로 한국은 후쿠오카 세계선수권 일정을 마감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경영 7개 종목에서 8개의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

개인 종목에서는 남자 자유형 200m 황선우(1분44초42), 자유형 800m 김우민(7분47초69), 평영 100m 최동열(59초59)이 기록 달성을 기쁨을 누렸다.

단체전인 계영에서는 더 많은 한국 신기록이 작성됐다. 황선우, 김우민, 양재훈, 이호준이 남자 계영 800m 예선(7분06초82)과 결승(7분04초07)에서 연거푸 한국 기록을 깼다. 지유찬, 양재훈, 허연경, 정소온이 혼성 계영 400m(3분27초99), 이은지, 최동열, 김영범, 허연경이 혼성 혼계영 400m(3분47초09)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웠고, 마지막 날 남자 혼계영 400m에서도 한국 신기록이 탄생했다.

/ 최준용 기자



루키바둑 영웅전 우승 당시 김은지 6단

‘천재소녀’ 김은지, ‘바둑여제’ 최정에 8연패 뒤 마침내 첫승

‘천재 바둑소녀’ 김은지(16) 6단이 마침내 ‘바둑여제’ 최정(26) 9단의 벽을 넘어서졌다. 여수 세계선박람회 주장인 김은지는 29일 저녁 성동구 마장로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2023 NH농협은행 한국여자바둑리그 4라운드에서 보령 머드의 주장 최정을 상대로 243수 만에 불복승했다.

이날 흑을 잡은 김은지는 초반부터 백을 공격하며 판을 주도한 끝에 완승을 거뒀다. 2020년 1월 입단한 김은지는 데뷔 때부터 ‘미래의 바둑여제’로 평가받은 특급 유망주다.

불과 3년여만에 여자랭킹 2위까지 치고 올라온 김은지는 지난 25일 제1기 조아제약 루키바둑 영웅전 결승에서 권효진(19) 6단을 꺾고 정상에 올라 여자기사 최초로 종합 신예기전에서 우승하는 신기

원을 이룩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동안 김은지에게 최정만큼은 넘지 못할 거대한 벽이었다. 김은지는 10년 가까이 여자랭킹 1위를 지키는 최정을 상대로 8전 전패를 당했다.

바둑 내용도 상당히 뒤졌다. 하지만 이 날은 내용에서도 상대를 압도하며 일방적인 승리를 안았다. 이 대국을 바둑TV를 통해 해설한 백홍석 9단은 “김은지가 너무나 잘 둔 바둑”이라며 “이전에는 김은지가 느슨한 점이 있었는데 오늘은 시종 일관 최정을 몰아붙였다”라고 평가했다.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한 최정은 지난 해부터 여자기사를 상대로 22연승을 달리다 제동이 걸렸다.

최정과 김은지는 다음 달 22일부터 2023 닥터지 여자최고기사 결정전 결승 3번기에서 맞붙는다.

/ 오찬혁 기자

김민재, 데뷔전 ‘선발 출전+공수 맹활약’…가와사키에 1-0 승리

파바르와 센터백 호흡…전반전만 소화하고 교체



지난 26일 맨체스터 시티와 친선전에서 1-2로 패했던 뮌헨은 일본 투어 두 번째 경기에서는 승리를 따냈다. 무엇보다 이날 경기의 관심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8일 뮌헨 유니폼을 입은 김민재의 출전 여부였다.

김민재는 맨시티전에는 출전선수 명단에서 빠졌지만 이날 가와사키를 상대로 선발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특히 가와사키에는 ‘대표팀 선배’ 정성용이 골키퍼로 나서 ‘태극전사 맞대결’도 펼쳐졌다. 프랑스 대표팀 수비수 뱅자맹 파바르와 센터백 호흡을 맞춘 김민재는 전반 초반부터 ‘몬스터’의 기운을 발산했다.

김민재는 수비력보다 공격력으로 먼저 팬들의 박수를 받았다. 전반 11분에는 상

대 진영까지 깊숙하게 침투해 상대의 패스를 잘라낸 뒤 페널티지역 왼쪽으로 재빠르게 과고든 뒤 컷백 패스를 내줬고, 쇄도하던 마티스 텔이 오른발 슛을 시도했지만 가와사키 골키퍼 정성용이 선방에 차단됐다. 김민재는 ‘뮌헨 데뷔전’에서 공격포인트를 작성할 뻔했지만 ‘대표팀 선배’ 정성용에게 막히고 말았다.

김민재는 전반 29분 특유의 악착같은 수비로 실점 위기를 막았다. 중원에서 상대의 역습을 막다가 돌파를 허용했지만, 곧바로 다시 뛰어가서 페널티지역 오른쪽 부근에서 몸을 사리지 않는 수비로 기어코 볼을 빼앗아냈다.

그는 전반 6분 요주아 키미히의 왼쪽 코너킥 상황에서 공격에 가담해 골지역 정면에서 번쩍 솟아올라 헤더로 득점을 노렸다. 볼은 크로스바를 훌쩍 넘었고, 그의 ‘뮌헨 입단 1호 슈팅’이었다.

/ 백경민 기자

김민재, 제천의병장사씨름대회서 6번째 백두장사 등극

김민재(영암군민속씨름단)가 제천의병장사씨름대회에서 통산 여섯 번째 백두장사에 올랐다. 김민재는 30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3 민속씨름 제천의병장사씨름대회 백두급(140kg 이하) 결승전(5판3승제)에서 김진(증평군청)을 3-1로 꺾고 통산 6번째 백두장사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8강에서 윤성희(동작구청)를 연속 들판지기로 제압한 김민재는 준결승에서 차승진(구미시청)을 상대로 첫판 밀어치기를 성공했지만 잡채기를 내줬다.

/ 민영준 기자

마지막 판 김민재가 원배지기에 성공해 2-1로 장사 결정전에 진출했다.

김민재는 장사 결정전에서 김진에 먼저 들판지기를 허용했으나 잡채기로 응수해 균형을 맞췄다.

이어 밀어치기와 배지기에 연속 성공해 정상에 등극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남자부 단체전에서는 연수구청(인천광역시)이 용인특례시 청(경기도)을 4-2로 누르고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 민영준 기자

SAMJIN 삼진제약

맞다! 게보린 낫다! 게보린

통증은 빠르게 해결될수록 좋습니다.

두통, 치통, 생리통, 근육통, 오한, 발열까지…통증을 빠르고 깔끔하게!

증상에 맞게 복용하는 게보린만의 맞춤 케어 솔루션으로 늘 당신 곁에 함께합니다.

다양한 통증에도 역시 게보린!



생리통에 더 빠른 케어솔루션
게보린® 소프트



백신 접종 후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제
게보린® 클다운 정



근육통 케어 프리미엄 진통제
게보린® 힐랙스

오은영 “학교서 선생님이 잘 가르칠 수 있게 각자 할 일 해야”

넷플릭스 행사서 강연…“가슴 아픈 일로,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육아 전문가 오은영 박사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키울 수 있게 각자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8일 오후 서울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넷플릭스의 ‘아이와 함께 하는 특별한 레드카펫’ 이벤트에서 무대에 오르자마자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리면서 “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면들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날 발언은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가 교



권 침해 의혹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은희표 스플릿 드라마, ‘악귀’ 자체 최고 시청률로 ‘유종의 미’



드라마 ‘악귀’

장르물의 대가로 불리는 김은희 작가가 각본을 쓴 드라마 ‘악귀’가 자체 최고 시청률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

30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SBS가 방송한 ‘악귀’ 마지막 회는 11.2%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종전 최고 시청률 11%보다 높은 수치다.

마지막 방송은 악귀에 써어 일렁이던 구산영(김태리)의 그림자가 평범한 모습

으로 돌아온 이유가 밝혀졌다. 이는 악귀가 산영의 몸을 차지하고 산영이 거울 속 세계에 갇혔기 때문이었다.

악귀는 자신이 산영인 것처럼 연기하지만, 염해상(오정세)과 이홍재(홍경)는 진실을 알아내고 악귀를 없애기 위한 단서를 계속 찾는다.

결국 해상은 악귀를 없앨 단서를 찾아내지만, 악귀는 “이 몸이 죽으면 구산영도 죽는다”며 자제하면서 해상에게 맞선다.

‘악귀’는 과거 ‘시그널’, ‘킹덤’ 등 여러 장르물의 성공을 이끈 김은희 작가가 각본을 맡은 ‘한국형 오컬트’로 방송 전부터 주목받았다.

드라마는 귀신이라는 소재를 택하면서도 각 인물의 서사와 설정을 충실히 다뤄 몰입감을 높였다. 배우 김태리는 소름끼치는 악귀와 평범한 구산영을 오가는 극과 극의 모습을 연기했다.

지상파 드라마로서는 흔치 않고 호불호가 엇갈리는 장르인데도 ‘악귀’는 첫 방송이 9.9%로 출발해 이후 거의 모든 회차가 10%대의 높은 시청률을 유지했다.

/ 권도훈 기자

tvN 새 드라마, ‘소용없어 거짓말’ 황민현 “첫 로맨스…설렘 유발할 자신 있죠”



“감독님도 로맨틱 코미디 장인이시고, 소현 씨도 경험 많은 선배라서 많이 도움받았어요. 설렘 유발할 자신 있습니다.” (웃음)

tvN 새 드라마 ‘소용없어 거짓말’의 주연으로 나선 가수 출신 배우 황민현은 27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본격 로맨스 연기는 처음”이라며 “저만 잘하면 많은 분이 공감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작품을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용없어 거짓말’은 타인의 거짓말을 알아챌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하는 여자 목솔희(김소현 분)와

각에서 제기됐고, 이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방이 이어졌다.

오 박사는 이날 아이들이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 올바른 시청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디어 콘텐츠가 모두 악(惡)은 아니다”면서 부모가 교육적이고 잘 들어진 영상을 함께 시청한 뒤 아이들과 생각해볼 거리에 관해 여러 각도로 이야기를 나눌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셜 미디어에서 영상 시청 후 아이들이 애플이나 협오 메시지를 댓글에 쓰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은정 기자



스트레이 키즈, 9월 첫 일본 미니앨범 발매

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9월 6일 일본에서 첫 번째 미니앨범(EP)을 발매한다고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28일 밝혔다.

더블 타이틀곡 ‘소셜 패스’(Social Path)와 ‘슈퍼 볼’(Super Bowl)을 비롯해 신곡 ‘버터플라이즈’(Butterflies) 등이 담긴다.

‘소셜 패스’에서는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주제가를 부른 일본의 가수 리사(Lisa)가 피쳐링으로 참여한다.

리더 방찬은 이 곡에 대해 “제 경험을

비탕으로 쓴 가사”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버텨내고 있을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하고자 했다”고 소개했다.

스트레이 키즈는 앨범 발매에 앞서 8월부터는 도쿄 돔을 비롯해 일본 4개 도시에서 8회 규모의 돔 투어 콘서트로 팬과 만난다.

9월 30일과 10월 1일에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다.

/ 최규현 기자

2PM 이준호 악플러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그룹 투피엠(2PM)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하는 이준호를 상대로 지속적인 악성 게시글을 단 누리꾼에

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누리꾼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준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인격을 심각히 훼손하는 글을 여러 차례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이준호)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수 차례에 걸쳐 게시했다”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 김희찬 기자

경찰연합신문

www.koreapolice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최영민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민영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광고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UMMER FANTASY

현대백화점이 선보입니다, 국내 첫 디즈니 스토어

올 여름, 현대백화점이 판교점에 국내 첫 디즈니 스토어를 선보입니다.

백설공주부터 엘사까지, 한 세기 동안 모든 세대에 걸쳐 사랑 받아온 캐릭터와 스토리를 만나보세요.

판타지 스튜디오

10m 초대형 “미키 마우스”와 9개의 캐릭터의 세계관으로 구성된 체험형 콘텐츠

무역센터점 정문광장·문화홀
8.1(화) - 8.20(일)

국내 첫 디즈니 스토어

디즈니, 픽사, 마블, 스타워즈를 아우르는 다양한 디즈니 캐릭터로 디자인 된 굿즈

판교점 5F, 더현대닷컴 온라인
7.11(화)

이벤트 & 기프트

디즈니 OST 콘서트,
캐릭터 코스튬 팬이벤트
캡슐 이벤트와 포토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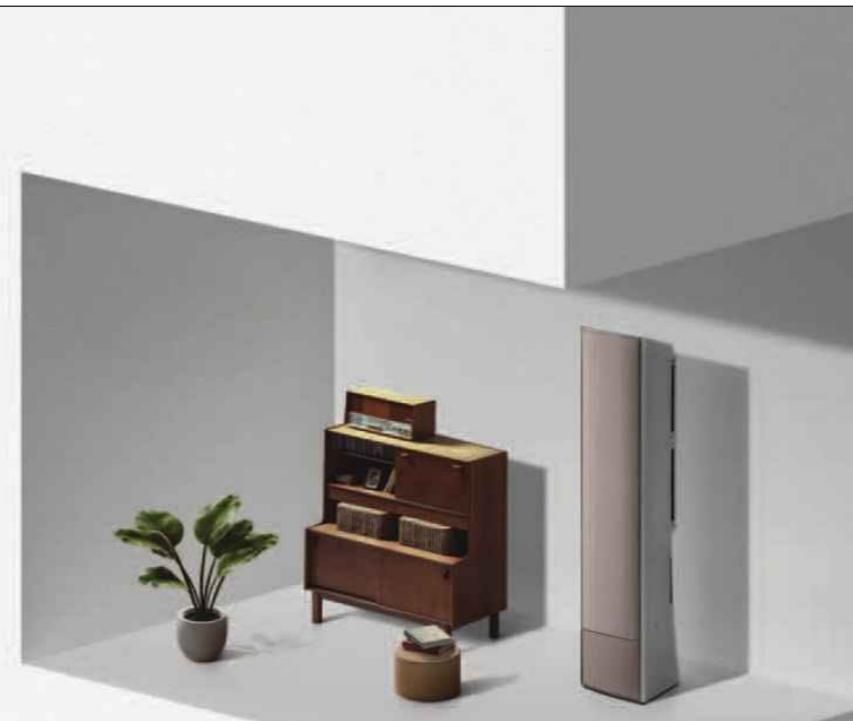
현대백화점 전점
8.1(화) - 8.24(목)

Disney | THE HYUNDAI



SAMSUNG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은
기본 ↓



BESPOKE 무풍에어컨
고효율로
에너지 소비효율을 1등급 최저기준 보다
최대 10% 절전

고효율로
절전 ↓



BESPOKE 냉장고
고효율로
에너지 소비효율을 1등급 최저기준 보다
최대 22% 절전

AI 절약모드로 또
절전 ↓



Neo QLED
AI 절약모드
별기 조절로
최대 20% 절전

이런 게
요즘
삼성
가전
다운
가전
절전
절전



BESPOKE 그랑데 AI 세탁기
AI 절약모드
실리 사용량 효율화로
최대 60% 절전

가격은 DOWN / 혜택은 UP

삼성 절전가전 페스타

2023/6/1 ————— 7/31

1. 구매 금액대별 혜택
삼성카드 결제일 할인
2. 2개 품목 이상 구매 시
동시구매 멤버십 포인트 혜택
3. 삼성닷컴 할인 혜택
(최대 40% 할인)
4. 삼성닷컴
베스트 리뷰어 챌린지

* 최대 40% 할인율은 기준가 대비 혜택가 할인율이며, 단점 구매 기준 할인율입니다.
* 멤버십 포인트는 삼성전자 멤버십 회원에 한하여 지급되며, 멤버십 회원은 만 14세 이상인 가입 가능
(단, 본인 명의의 휴대폰 인증, 아이디/마이페이지 등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고객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삼성닷컴 절전가전 페스타 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당사 에너지 세이빙 가전의 낭비효율은 7.7, 월간 소비전력량은 184.1 kWh/월로 낭비효율이 7.0이고, 월간 소비전력량이 205kWh/월인 에너지 소비효율은 7.7으로 낭비전력량이 10% 더 낮음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최저기준보다 소비전력량이 10% 낮은 에너지 세이빙 가전은 대비 모델(AF17CX936AFR)에 한함
*해당 모델은 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인증규정에서 제시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기준인 7.0 대비 에너지 소비효율이 10% 낮은 7.7 *에너지 세이빙 가전은 일부 모델(RF85C900E0T)에 한함

*제품에 부착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기치로 한국에너지공단 규격 인증 시 실측된 소비전력량과 다를 수 있음
*875L 냉장고(RF85C900E0T) 월간 소비 전력량: 35.7kWh/월
*해당 모델의 보정유지내용작성을 기준으로 축출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최저기준 월간 소비전력량: 45.8kWh/월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최저기준보다 소비전력량이 22% 낮은 에너지 세이빙 가전은 일부 모델(RF85C900E0T)에 한함

[TV]
*시험 조건: 실내 온도 20°CLux +4°C형 모드 +4°C형 냉방·AI 절약모드 ("최대 절약" 선택)의 커짐
*무선 네트워크 사용 시 사용량은 커짐
*시험 조건: 시청 영상 분석을 통해 영상 볼기를 자동으로 조정하여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시청 조건에 따라 화면이 어두워 보일 수 있음 *이 기능은 게임 모드, 인공지능 모드와 같이 게임플레이 및 시청 최상선 모드에서는 동작하지 않음
*자사 시험 결과로 실사용 환경 (TV의 밝기 설정, 실내공간의 밝기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세탁기]
*AI 절약모드를 설정할 경우 세탁기의 경우 최대 60%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줌
*시험 조건: KS CIEC60456-5-3, 3kg, 일반 표준온도 기준, 수온 30°C, 세탁온도 30°C, 투수온도 30°C, AI 절약모드 ("최대 절약" 선택) 커짐
*무선 네트워크 사용 시 사용량은 커짐
*WIFI5GHz 신호 사용 시 사용량은 커짐
*WIFI5GHz 신호 사용 시 사용량은 커짐
*GATM(국립과학기술연구원)의 검증을 통한 결과로 실사용 환경 (세탁기 밝기 설정, 실내공간의 밝기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AI 절약모드]
*AI 절약모드로 노진 가전에 따른 에너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 환경에 따라 스마트 미터기 별도 구매가 필요함
*AI 절약모드는 SmartThings에서만 지원됨, SmartThings는 지원 기관 및 사용 방법에 일부 제한이 있음
*AI 절약모드는 SmartThings 서비스에서 AI 절약모드 "월간 목표 사용량 설정"을 "최대 절약" 모드로 선택하면 즉시 기능이 되며, 누군 단계별 설정 모드로 설정할 경우 각 모드에 사용자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AI 절약모드의 가동시간과 에너지 절약수율이 달라질 수 있음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및 절전 기능은 일부 모델에 한함